

부활절 다섯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4년 4월 2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99 장 “하나님 사랑은” (통일 41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7 번 시편 29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John) 15:1-8, 요일(1 John) 4:7-19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임 재”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내 삶의 이유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찬양 “사명”(김재문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14 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51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만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칭찬 듣는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공허했고,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좇아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소원하오니,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4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And so we know and rely on the love God has for us.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Him.” (1John 4: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8 (주일)	4/29 (월)	4/30 (화)	5/1 (수)	5/2 (목)	5/3 (금)	5/4 (토)
민	민6	민7	민8	민9	민10	민11	민12,13
본문	시40,41 아4 히4	시42,43 아5 히5	시44 아6 히6	시45 아7 히7	시46,47 아8 히8	시48 사1 히9	시49 사2 히1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1수 오후7:30)	“제자 삼으라” (마28:18-20)
토요 새벽기도회(5/4토 오전6:30)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136:1-9)

지난 주일(4/21) 말씀

“선한 목자” (시 23:1-6, 요 10:11-18)

시편 23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에는 양과 염소 등을 '유목하던 사람들'과,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만 했던 '유목 문화'보다는, 한 곳에 머물며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농경 문화'를 사람들은 더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편 23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는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표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23:4)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한 "그분"(3인칭)이 아닌, "주님"(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여겼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 상을 베푸시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떠올린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10:11)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